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 박정성 통상차관보,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 인니 경제조정부 차관 면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금)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하였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제도 개편 및 한국 기업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관련 애로에 대해 다시 한번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알리 차관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박 차관보는 양국 간 정례 경제협력 플랫폼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수석대표 : (한) 산업통상부 장관 -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성제민	(044-203-5718)

☐ 회의 개요

- 일시 : '26. 1. 23.(금) 15:00 ~ 15:30
- 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 스위트(36층)
- 참석자
 - (한국측) 박정성 통상차관보, 민문기 아주통상과장 등
 - (인니측)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니 경제
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 등
- 논의 내용 :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지원 방안, 한-인니 경제
협력위원회 재개 등 양국 경제·통상협력 현안 논의

☐ 세부 일정(안)

※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세부 일정
15:00 - 15:05	사진 촬영
15:05 - 15:10	모두 발언
15:10 - 15:25	한-인니 경제·통상협력 현안 논의
15:25 - 15:30	마무리 발언